

“학습하라, 변화하라, 행동하라”

금속노조 11기 첫 교육활동가대회 열어 ... 참여·실습·체험 교육으로 적극 호응 이끌어

내년 4월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완공을 앞두고 교육 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가 2월 5일과 6일, 충북 영동 레인보우 연수원에서 ‘11기 1년 차 교육활동가대회’를 열었다.

노조 교육실이 계획한 100여 명을 훌쩍 넘어 123명의 현장 교육담당자가 대회에 참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대회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컸지만, 교육에 참가한 교육담당자들의 눈빛만큼은 빛났다.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조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화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 교육사업은 노조가 안정되면 예산과 사업 배치에서 뒤로 밀리는 경향이 크다. 이러 경향의 원인은 노동해방이라는 초심보다 임금이라는 노동력에 대한 가치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교육은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활동가대회는 지부·지회 교육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직접 조합원 교육 계획을 세우고, ‘구글 독스’ 등을 이용한 설문 조사 방법 등을 익혔다.

신규 교육활동가들은 <교육 활동 세우기> 강의를 듣고 직접 강의계획을 작성했다. 노동조합 교육의 관점과 원칙 등에 대한 강의에 이어 실제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 계획을 세우는 실습을 벌였다.



이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구글 독스, 멘티닷컴 등 웹과 모바일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문이나 토론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혔다. 간단한 방법으로 현장 활동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설문과 토론 진행>이라는 교육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강의계획 작성, 게임 이용 모의 교섭 등 참여 위주 교육 뜨거운 호응

노조는 ‘마젠가’와 ‘노조 마블’ 등 게임을 이용해 단체교섭과 투쟁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들 게임은 모의 교섭을 통해 단체교섭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마젠가’는 노조 한국지엠지부 교육선전실과 교육위원회가 보드게임의 하나인 ‘젠가’를 이용해 모의 교섭을 벌이는 교육이다. 먼저 노사 양측으로 팀을 나눠 쌓아 올린 직육면체 나무 블록을 번갈아 가며 빼낸다. 쌓은 블록이 무너지면 노사 각 팀이 빼낸 블록에 쓰인 요구안 등을 이용해 단체

교섭을 벌여 의견접근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이는 방식이다.

노조 마블은 카드와 주사위를 이용한 전략형 보드게임을 기반으로 민주노총 보드게임 제작기획팀이 만들었다. 게임 참가자들은 여덟 명의 노조 간부 캐릭터를 선택

한 뒤 단체교섭 준비, 교섭기, 투쟁기, 마무리기로 나눈 상황에 맞게 주사위와 카드를 이용해 말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교섭을 벌인다. 투쟁 칸에서 출발한 노동조합 말이 다시 투쟁 칸으로 돌아오면서 사용자 모두 말을 제거하면 승리한다.

마젠가에 참여한 강수미 노조 경기지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부장은 “강의식 교육은 의무감으로 참여해 집중하기 어려운데, 실습에 직접 참가하니 집중이 잘 되고 교육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 좋았다”라고 평가했다.

대회 첫날,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기후 위기와 노동운동: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노조 교육실은 “지구 기후 위기라는 상황에서 벌어질 지배계급 전락과 자본의 구조조정, 그에 맞선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천을 고민하는 자리”로 특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지회 교육활동가들은 11기 1년 차 교육사업계획과 교육연수원 건설 현황에 관한 보고 듣고 일정을 마쳤다.

“오죽하면 길 위에 자식 시신 두고 싸우겠나”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전국노동자대회 ... “부정 경마 판치는 마사회 존재 이유 없다”

민주노총이 고 문중원 열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마사회 적폐 청산을 향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노총은 열사의 죽음에 대해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책임을 물으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인 마사회가 71년 동안 저지른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문중원 열사가 목숨을 끊은 지 72일째 되는 날인 2월 8일 경기도 과천시 랫츠런파크 앞에서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한국마사회 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대회에 앞서 경마공원 안에 있는 마사회 본관 앞에서 김낙순 회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항의면담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경마가 열리고 있는 경기장 안에 마사회 비리를 폭로하는 유인물 1만여 장을 뿌리며 김낙순 마사회장 문책을 촉구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출장을 핑계로 자리를 뜨고 없었다. 경찰은 차량으로 본관 출입문을 막고 유족과 조합원들을 방패로 밀어냈다. 마사회와 경찰은 지난해 12월 24일에 마사회장 면담을 요구하는 열사 부인의 머리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

민주노총은 면담 요구가 가로막히자 마사회 본사 앞에서 약식 규탄대회를 열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마사회가 열사를 모독하고 유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분노했다. 진기



영 공공 수석부위원장은 “교섭 자리에서 마사회에 유가족의 마음을 아냐고 물었다. 마사회는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산경남경마공원 숙소 옆에 ‘심리치료실’을 만들어 유족들이 치료받게 하겠다”라고 대답했다”라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민주노총은 곧이어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에서 “마사회는 열사의 죽음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일곱 명이 죽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투전판이라는 고발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를 청렴한 조직이라고 평가했다”라고 규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마사회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는 4월 총선에서 정부의 책임을 심판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열사의 아버지인 문군옥 씨는 유족 발언에서 “죽은 중원이를 보니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짊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리고 석장의 유서를

확인했다”라며 유서에 적힌 마사회 비리를 고발했다. 문군옥 씨는 “오죽하면 서울까지 올라와 죽은 자식의 시신을 광화문 길모퉁이에 두고 싸우겠나”라며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 본부장은 투쟁사에서 공정 경마라는 목적을 상실한 마사회는 더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석병수 본부장은 “마주가 외국에서 1등할 능력이 있는 20억 원 정도의 말을 사오면, 고객들은 그 말에 배팅하게 돼있다. 그때 마주와 조교사는 기수에게 ‘절대 5등 안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부당경마를 지시한다. 다섯 번 정도 5등 밖으로 밀려나면 고객들은 그 말에 배팅하지 않는다. 마주와 조교사, 마사회 직원들이 그 시점에 그 말에 배팅을 수 많은 돈을 챙겨간다”라고 고발했다.

석병수 본부장은 “문중원 열사는 부당경마 지시를 듣지 않고 마사회법대로 최선을 다해 달렸다. 부당 지시를 거부하고 2등으로 들어온 문중원 열사의 삶은 망가졌다. 마주와 조교사는 더는 문중원 열사를 말에 태우지 않았다. 지금 마사회에 공정 경마는 없다”라고 분노했다.

유족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들은 매주 목요일 헛상여를 매고 청와대로 간다. 매일 저녁 7시에 광화문 시민분향소 앞에서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문중원 열사의 시신은 승합차에 실려 시민분향소 한 쪽 길 위에 44일 넘게 누워 있다.